

뉴질랜드, 화훼산업 개황

뉴질랜드에서 화훼산업은 과수나 채소산업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온화한 기후, 강한 일조 조건, 깨끗한 자연환경 등 노지에서도 고품질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민이 꽃을 가꾸고 감상하는 꽃의 생활화가 일상화되어 있어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북반구의 비생산시기에 화훼 수출이 가능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왔고,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구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화훼의 생산과 무역 개황을 정리한다.

1. 화훼 생산

현재 2,000여 농가가 절화, 분화, 구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00 농가는 전업 화훼 생산자들이다. 뉴질랜드 화훼 생산의 특징은 전체 생산자의 80%가 화훼 외에 타 소득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화훼 수출은 주로 전업 생산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절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기후가 생산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꽃의 다양성 면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화훼재배업자, 유통업자, 연구자, 소매점 등이 연계된 뉴질랜드 화훼산업연합(NZ Flower Industry Federation: FloraFed)이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 화훼 관련 종가사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FloraFed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화훼산업이 틈새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국내 절화시장은 70백만 NZ달러로 추정된다. 국내 유통은 대부분 전문 소매점이나 슈퍼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화훼 전문업자(florist)의 취급비중이 높았다. 현재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식품소매점, 공항매점 등에서도 여러 품목을 혼합한 포장다발을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구매까지도 고려한 판매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화훼농가의 판매방식도 전통적 경매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점과 직거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 화훼 수출

뉴질랜드의 화훼류(종자포함) 수출은 1990년 38.3백만 NZ달러에서 2003년에는 125.6 백만 NZ달러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3.3배나 증가하였다<표 1>. 품목군 별 비중은 절화가 1990년대까지는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약간 감소하여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수출 절화가 세계 절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이른다.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 품목은 난, Sandersonia, Zantedeschia 등이었으나 최근 난의 수출은 다소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 Zantedeschia 품종의 하나인 Calla Lilies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분화수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수출액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분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뉴질랜드의 분화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화훼류 수출 추이

금액 단위: 백만 NZ\$(%)

		1990	1995	2000	2002	2003
절 화	Alstroemeria	-	-	0.4	0.6	0.4
	국화	-	-	0.3	0.4	0.6
	백합류	-	1.5	1.9	1.0	0.9
	Nerines	-	-	0.6	0.5	0.5
	난(심비디움)	8.2	14.6	22.4	21.0	16.8
	작약	-	-	0.5	1.1	1.2
	Proteaceae	0.5	1.5	1.4	1.0	0.9
	Sandersonia	0.2	5.6	3.1	2.6	1.4
	Zantedeschia	1.9	6.6	7.7	7.2	6.8
	기타	7.8	19.9	7.8	12.5	9.9
소 계		18.6(48.4)	49.7(54.4)	46.1(43.4)	47.9(39.6)	39.4(31.4)
분 화	산식물	2.5	3.5	5.6	10.6	12.3
	군엽식물	0.7	0.2	0.6	1.0	0.4
	소 계	3.2(8.3)	3.7(4.1)	6.2(5.8)	11.6(9.6)	12.7(10.1)
종자, 구근	화훼종자	0.1	0.3	2.1	2.6	0.9
	채소종자	2.1	7.3	15.9	19.2	23.3
	관상수종자	-	-	1.6	1.6	1.8
	구근류	2.0	6.3	11.6	17.9	24.5
	소 계	4.2(10.9)	13.9(15.2)	31.2(29.3)	41.3(34.1)	50.5(40.2)
이 끼 류	11.0(28.7)	17.3(18.9)	15.3(14.4)	13.3(10.9)	14.5(11.5)	
호 프	1.4(3.7)	6.8(7.4)	7.5(7.1)	7.0(5.8)	8.5(6.8)	
계		38.4(100)	91.4(100)	106.3(100)	121.1(100)	125.6(100)

주: ()내는 전체 수출액에 대한 품목군별 구성비임.
 자료: HortResearch,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뉴질랜드의 화훼류 수출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구근류와 종자이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3년에는 절화 수출액을 상회하였다. 이끼류의 수출도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수출하는 화훼의 약 70%가 일본 시장일 정도로 일본 편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난(12백만 NZ달러), Zantedeschia(4백만 NZ달러), Sandersonia(1백만 NZ달러) 등이다. 최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이 시도되고 있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비디움은 뉴질랜드의 대표적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경향에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항공화물 선적 공간 부족, 항공 운송비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태 htpark@krei.re.kr 02-3299-42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